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□ 신장자치구, 중앙아시아와 무역증가에 따른 대륙횡단철도 개선사업 추진	2
□ 인도, 서벵갈 주 및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신규 항만건설 추진	3
□ 호주, 16억 달러 규모의 멜버른항 확장공사 승인	4
□ 나이지리아,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터미널 개발 필요	5
□ [공지] 장기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	6

□ 신장자치구, 중앙아시아와 무역증가에 따른 대륙횡단철도 개선사업 추진

- 대륙횡단철도는 중국 렌윈강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연결하는 총 길이 10,870km의 철도노선을 지칭
 - 중국 내 11개 성/구와 89개 시, 570개 현/시를 지나서 신장자치구 아라산커우를 거쳐 세계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류통로임
 -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지나는 해상운송거리보다 약 1만km 단축 가능
- 중국과 중앙아시아와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신장자치구 아라산커우-도스틱 통과물량은 2008년 16만 TEU에서 2012년 25만 TEU로 56% 가까이 증가
 - 무역량 증가와 운송시간 및 비용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와의 궤간 차이로 인한 환적, 통관 및 검역의 비효율성, 환적능력 및 창고부족 등으로 인해 증가되는 교역량에 비해 수송능력이 부족한 실정임
- 이에 중국 정부는 대륙횡단철도의 중국 서측 종점인 신장자치구를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 - 최대 지체구간인 우루무치에서 알마티까지의 단선노선을 우루무치에서 후월귀스로 연결되는 복선구간을 2009년에 완공, 또한 후월귀스와 알마티를 연결하는 350km의 신규 복선노선을 2011년 12월에 개통하였음
 - 이와 더불어 투판에서 카스까지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하고 카스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까지 트럭을 이용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
 - 우루무치에서 안디잔까지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3,036km에 14일이 소요되나 카스를 경유하는 경우 거리는 2,030km, 소요시간은 절반인 7일에 불과하며, 또한 카스와 연결되는 철도노선을 건설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
 -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가상무부는 2011년 9월 중국에서 대륙철도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전국단위 산업조직을 비준하여 첫 번째 국가급 대륙철도 화물물류업무조직인 '중국 국제화물포워딩협회 국제대륙철도운수업무위원회'가 설립되었음
 - 대륙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정부부처, 항만, 화물, 물류, 유통, 대학, 연구기관 및 관련업무의 법인, 비법인기구와 개인 등 60여 곳이 참여하여 조직한 전국적 산업조직이며 비영리 단체이며 물류인프라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추진
 - 2010년 9월 우루무치해관은 역내경제 단일화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효율의 통관 환경을 만들고 신장자치구의 통로역할 강화와 자치구내 각 해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70여개의 해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
 - 중국 국경내에서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'신고-검수-허가'로 이어지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현시켜 통관시간을 크게 감소시켰음
- 물류인프라 건설 및 개선사업을 통해 대륙횡단철도의 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,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및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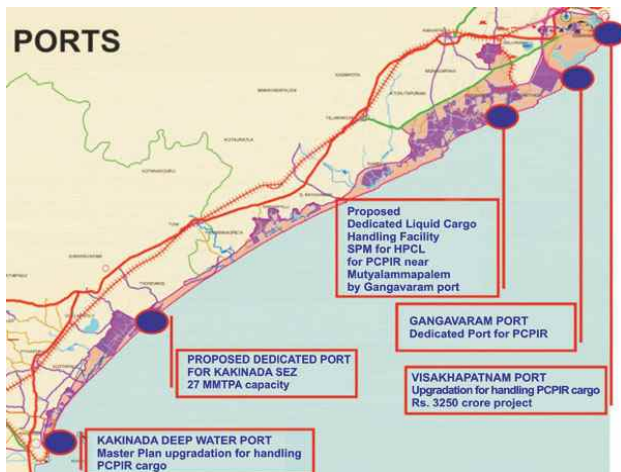
자료 : 신장자치구 출장조사 및 면담 자료
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□ 인도, 서벵갈 주 및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신규 항만건설 추진

- 인도 재정부는 2013-2014년 예산안에 발표에서 서벵갈(West Bengal) 주와 안드라프라데시(Andhra Pradesh)주에 신규항만을 건설할 것을 공표
 - 인도정부는 서벵갈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 두 개 지역에 각각 신규항만을 건설하여 해당지역 하역능력을 연간 1억 톤까지 확장할 계획임
 - 특히 서벵갈주에 들어설 신규항만은 할디아(Haldia)와 콜카타(Kolkata)지역을 연결하는 강 입구에 위치한 사가섬(Sagar Island)에 건설될 예정이며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계획임
- 또한 투티코린에 새로운 외항 건설도 추진
 - 인도 타밀나두주 투티코린 V.O.C항에 새로운 외항을 민관합작 형태로 개발할 계획임
 - 해당 항만의 건설비용은 750억 루피(13.8억 달러)이며 항만 완공 후 연간 4,200만 톤의 추가적인 하역능력이 확보될 것임
- 인도는 지속적인 항만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하역능력을 기존의 3배까지 확장계획 중
 - 현재 인도의 하역능력은 연간 120억 톤이며 2017년까지 연간 200억 톤으로 확장하고, 2020년까지는 기존의 3배까지 확장할 계획임
 - 이에 따라 상기 항만개발계획 이외에도 지속적인 항만개발이 이뤄질 것이며, 인도정부는 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신규항만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음

< 안드라프라데시 주 기존 항만 위치 >



자료 : www.appcpir.com

< 서벵갈 주 기존 항만 위치 >



자료 : www.mapsofindia.com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3.3.4/ www.sarkaritel.com, 2013.1.9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hmjeon@kmi.re.kr)

□ 호주, 16억 달러 규모의 멜버른항 확장공사 승인

- 호주 빅토리아주 계획부는 16억 달러 규모의 멜버른(Melbourne)항 재개발 사업 승인
 - 승인된 재개발 사업은 멜버른항 웹독(Webb Dock)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과 자동차 터미널을 건설하는 멜버른항의 하역능력 확장 사업임
 - 신규 컨테이너터미널과 자동차터미널은 2016년 말에 완공될 계획임
- 멜버른항 컨테이너 하역능력 확장 사업
 - 멜버른항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항만으로 회계연도 2011-2012¹⁾에 258만 TEU를 처리, 전 해에 비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7.8% 증가함
 - 향후 10~12년 안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웹독에 연간 컨테이너 100만 박스(box)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며, 또한 부두 증심, 공컨테이너 장치장 건설 등도 함께 추진됨
- 멜버른항 자동차 터미널 신규 건설 사업
 - 멜버른항은 회계연도 2011-2012에 35만 대의 수출입 자동차를 취급함
 - 연간 60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자동차 터미널을 웹독 서측에 건설할 계획임
 - 신규 자동차 터미널은 총연장 920m의 3개 선석, 32ha 넓이의 호주 최대의 자동차 터미널이 될 것임
- 환경 및 지역사회 친화적 항만건설 추진
 - 멜버른항 확장 공사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및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될 것임
 - 이에 따라 항만과 배후도시 간 완충지역이 마련될 예정이며, 해당 완충지역은 조경 및 생태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
 - 향후 입찰자들은 소음, 빛, 교통정체 문제, 지역사회의 경관 등에 대한 방안을 입찰 시 제시해야 함

※ 참고 :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50호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3.2.25/ www.mastermariners.org.au, 2013.2.27.

김홍매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1) 2011년 7월 1일 ~ 2012년 6월 30일

□ 나이지리아,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터미널 개발 필요

- 머스크라인 나이지리아 법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터미널 건설이 필요
 - 2012년 머스크라인 무역 레포트에 따르면 라고스(Lagos)항 터미널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증가하고 있는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과 물동량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터미널 건설이 필요함을 밝힘
 - APMT에서 운영하고 있는 Tin-Can Island 컨터미널(TICT)도 설비 업그레이드와 터미널 확장을 시작하였으나 CY 부족현상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음
 - 2006년부터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 처리물량은 8,276만 톤임

< 라고스항 물동량 >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물동량(톤)	46,150,518	54,641,048	65,192,919	66,908,322	74,910,284	82,763,384

자료 : Nigerian Port authority, 2013.3.8.

- 나이지리아 동부의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 인프라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이지리아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계획 하고 있음
- 머스크라인은 나이지리아의 2013년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성에 긍정적 평가를 함
 -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미시적 경제변화 요인과 유류가격의 안정여부 등이 불안정하여 성장저해의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함

< 라고스항 위치 >



자료 : www.greeceathensaegeaninfo.com, 2013.3.8.

자료 : www.hellenicshippingnews.com 2013.3.7.

< 라고스항 터미널 전경 >

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< 장기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>

-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**장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**하고자 합니다.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지원 기업
 -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- 지원 사업
 - 해외 물류센터, CY 및 항만 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개발·투자·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
 -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·운영
 - 해외파트너사와의 JV 설립 및 해외물류기업(해운선사, 3PL, 터미널 운영사 등)의 인수·합병 등
- 지원 범위
 -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선행하는 현지 물류여건, 물동량 전망, 개략적인 수익 및 운영비 등을 **3건 내외**로 조사하여 지원 할 예정 (단, 기업 당 1건 지원)
- 지원 기간 및 방법
 - 지원 기간 : 2013.3.6(수)~ 2013.4.3(수) 24:00
 - 지원 방법 : '장기 컨설팅 지원 신청서'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
 - 전해경 연구원(saeii@kmi.re.kr) 및 최은혜 연구원(choeeunhye@kmi.re.kr)
- 지원신청서 평가 및 기타
 -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,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평가결과 공개 : 2013년 4월 중 KMI 홈페이지 또는 선정기업에게 개별연락
 -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필요 시 현지출장 및 체재비 등 실비 등의 부담 요청 가능 (단, 선정 시 사전협의 예정)
 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02-2105-2982/2838)로 문의

장기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		업 종	
	소재지					
	매출액 (최근3년)				당기순 이익 (최근3년)	
	재무비율	※ 서식 1 참고				
프로젝트 개요	사업명					
	국가/지역					
	주요사업 내용					
	프로젝트 담당자	부서		Tel		
		직위		Fax		
성명			E-mail			
프로젝트 주요내용	※ 별첨 자료요청 (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8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· 사업배경 및 필요성 · 사업의 목적 · 사업내용(대상지, 사업 분야, 사업규모, 사업방식, 예상 사업비 등 상세기술) · 사업추진계획(착수일정, 운영시점 등 간략기술) · 영업계획(물량확보계획, 주요 화주 등 간략기술) · 기타 특이사항(합작파트너, 정부관계자와의 관계 사항 등 간략기술)					
지원요청 내용					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장기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장 귀하						
첨부서류 목 록	※ 프로젝트 주요 내용 별첨자료 ※ 서식 1					

※ 서식 1

구분	비율	2010	2011	2012
수익성 지표	매출액순이익률			
	총자산경상이익률			
안정성 지표	부채비율			
	유동비율			
성장성 지표	매출액 성장률			